

# KLSI

## ISSUE PAPER

제 162호  
2022-01호  
(2022.1.12.)

[www.klsi.org](http://www.klsi.org)

### 타투이스트 노동실태와 특징 - 일의 제도화와 노동안정성 과제 -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목차]

- I. 머리말
- II. 타투이스트 노동시장 현실
- III. 타투이스트 노동실태 특징
- IV. 맺음말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407 (백련빌딩) 701호

전화 02)393-1459

팩스 02)393-4449

[www.facebook.com/ksli.org/](http://www.facebook.com/ksli.org/)

## 〈요 약〉

- 첫째, 타투이스트 절반은 임금노동자(51.1%)였고, 일 경험이 없는 비경제활동인구(29.6%)도 적지 않았으나, 향후 이직 의향은 13.7%에 불과하였음. 타투이스트들은 현재의 일자리 선택은 '흥미, 관심, 적성'(25.7%),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일 하기 위해'(26.1%),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형태라서'(18.5%)가 많았음.
- 둘째, 2020년 타투이스트 연평균 소득은 3,000만원(남성 2,680만원, 여성 3,178만원)이었고, 3년 미만 타투이스트는 1,685만원 수준이었음. 투잡(36.3%) 비중이 적지 않았고, 주된 이유는 '불규칙한 소득'(42.9%)이나 '부차적인 소득 보충'(38.8%) 때문이었음. 타투이스트들은 연간 월 소득이 없는 기간은 평균 2.8개월(3년 미만 타투이스트 3.2개월)이나 되었음.
- 셋째, 타투이스트 평균 활동 경력은 2.9년(여성 2.6년, 남성 3.5년) 남짓이었는데, 1주일 평균 작업 일은 3.4일이었음. 타투이스트 1일 작업시간은 1.8시간이었으나, 타투 1건 당 작업 준비 시간은 5.5시간이나 되었음. 소득 보충을 위해 부업을 하는 타투이스트들은 1주일 평균 3.1일(1일 5.5시간) 정도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음.
- 넷째, 타투이스트들은 현재 사회보험 미가입 비율이 높았고, 건강보험(지역 45.5%, 피부양자 등 19%, 직장 12.4%)에 비해 국민연금(지역 29.5%, 직장 13.1%)은 절반 이상(57.4%)이 미가입 상태였고, 고용보험(89.3%)은 거의 없는 상황임. 한편 전국민 고용보험 정책이 시행될 경우 가입 의향은 86%로 매우 높았음.
- 다섯째, 타투이스트들의 '계약거래의 불공정이나 부당대우' 유경험은 △일방적 계약해지 45.5%, △부당한 지속적인 작업 수정 요구 43.9%, △작업 내용의 부당한 변경 32.5% 등이 많았음. 조사 결과 '폭언·성희롱·괴롭힘 유경험'은 △폭언 12.2%(여성 9.8%, 남성 13.4%), △성희롱 15.4%(여성 17.1%, 남성 12.1%), △괴롭힘 12.2%(15.9%, 남성 4.9%) 순이었음.
- 여섯째, 타투이스트들은 제도적·정책적 개선과제로 △근로자성 인정 92.9점(프리랜서 77.3점), △법률지원 시스템 마련 92.5점(프리랜서 81.1점), △표준계약가이드 마련 90.4점(프리랜서 78.1점), △경력인정 시스템 마련 89.5점(프리랜서 80.8점), △세무상담지원 88.2점(프리랜서 77.5점), △사회보험 지원 87점(프리랜서 76.8점), △국제교류 지원 85.3점, △건강심리지원 82.3점(프리랜서 69.4점), △인식개선 캠페인 81.4점(프리랜서 70.7점), △시장 모니터링 80.1점(프리랜서 74.2점) 등의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음.

# 타투이스트 노동실태와 특징

## - 일의 제도화와 노동안정성 과제 -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I. 머리말

- 최근 타투 합법화를 둘러싼 논의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국회에서는 정의당(류호정 의원)에서 ‘타투입법’을 발의한 상황임. 사실 타투(Tattoo)는 신체예술(body art)의 한 형태로 시술 절차와 시술 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 적합하나, 아직도 법원은 30년 전의 대법원 판결(1992.5.22. 선고 91도3219, 무면허 의료 행위)에 기초한 보수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상황임.
- 과거 타투는 비합법성 때문에 공식화된 직업으로서 인정받지 못했으나, 최근에는 개성과 적성 및 취향을 표출하는 패션아이템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사회적 수용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타투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그외 미용 관련 서비스종사원(42299: 타투이스트, 문신, 미용사, 면도사 등)으로 구분됨. 국내 타투이스트와 문신 시술사는 약 2만명 남짓으로 추정되며, 시술 이용자는 1,300만 명이나 되는 상황임. 현재 전업 타투이스트는 5,000명 남짓으로 추정되고 있음(한국타투협회, 2019).
- 타투 관심 증가와 맞물려 타투이스트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시장상황(업황부진, 경기불황 등)이 밝지 않은 상황임. 2021년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시기 해외 일감이 끊긴 상태에서 타투이스트들은 일거리 감소(63.7%)나 계절적 일거리 변동(11%)에 의해 소득 불안정성을 느끼고 있음. 실제로 앞으로 타투 일감이 줄거나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 10명 중 2명(20.7%, 계속 유지 79.3%)이나 되었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국내에서도 ‘타투유니온’(2020.2)이 만들어지면서 타투 합법화 및 타투이스트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 글은 타투 합법화 및 제도적 개선을 위해 2021년 타투이스트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및 노동실태를 탐색적 차원에서 정리한 것임.<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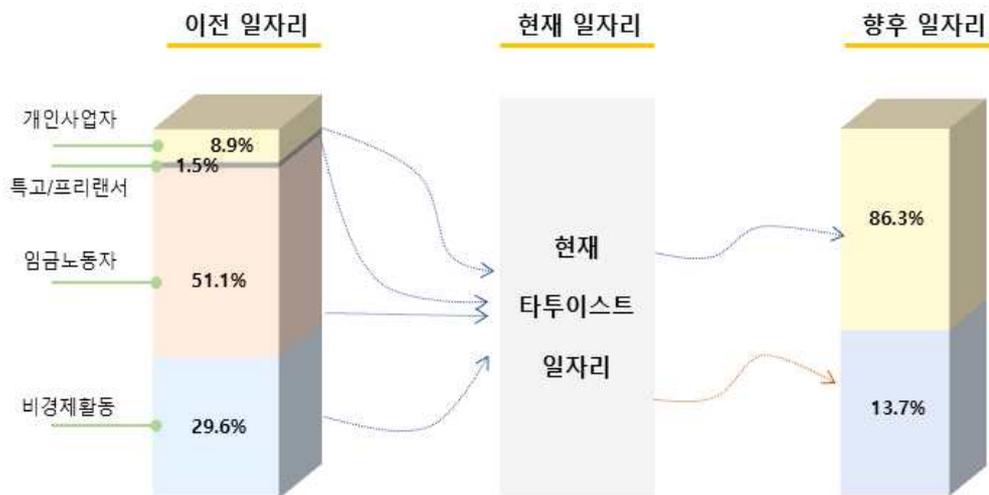
1) 이 조사는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약 4주 동안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되었고, 조사방식은 타투유니온과 공

## II. 타투이스트 노동시장 현실

### 1. 타투이스트 일 선택과 이동

- 타투이스트들은 이전에는 어떤 일을 했었고, 왜 일을 하고 있는지 혹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음. 첫째, 타투이스트 절반은 임금노동자(51.1%)였고, 일 경험이 없는 비경제활동인구(29.6%)도 적지 않았었음. 이전의 종사상 지위는 정규직이 57.8%였고, 비정규직도 28.9% 정도 되었음. 그러나 향후 타투이스트들이 현재 일을 그만 두고 다른 직업으로 바꿀 의향은 적은 것으로 확인됨. 2021년 조사결과 이직 의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13.7%에 불과 했음.

[그림 1] 프리랜서 노동시장 일자리 이동 모형



- 둘째, 타투이스트들은 현재의 일자리 선택은 ‘흥미, 관심, 적성’(25.7%),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일 하기 위해’(26.1%),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형태라서’(18.5%)가 많았음. 10명 중 8명가량은 자발적 선택에 의한 직업 선택이라는 점이 타 프리랜서에 비해 높았음.<sup>2)</sup> 타투이스트로 직업을 바꾼 사람들 또한 ‘흥미, 관심, 적성’(28.2%)과 ‘타투이스트 일이 경력이 더 잘 개발’(17.6%) 될 것 등을 꼽고 있었음.

동으로 진행되었고, 타투이스트 커뮤니티에 설문조사 링크를 공지하고 진행되었음. 설문문항은 △주 활동분야, △경제활동 상태, △계약방식, △노동환경, △사회보장, △정책과제 등으로 구성되었음.

2) 타투이스트 면접조사 과정에서 현재 일을 선택한 이유는 다양했으며, 전공 관련 분야(화가, 디자이너)도 있었으나 ‘가슴 뛰는 일’, ‘매력적인 일’, ‘애정과 즐거움’,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와 같은 자아실현 의지가 많았음. 타투이스트 이전 직업들은 화가, 디자이너, 일러스트, 작가 등임.

〈표 1〉 타투이스트 일자리 선택(단위: %)

타투 일을 한 이유	1,2 순위 합계	1순위	기존 일에서 타투로 바꾼 이유	1,2 순위 합계	1순위
시간 구애받지 않고 일하기 위해서	26.1	23.5	출산·육아·가사·가족돌봄 등으로 직장을 다 나기 어려워서	2.8	1.2
일거리를 구하기가 쉬워서	0.8	7.4	장시간 일을 해야 하는 직장이었기 때문에 힘들어서	11.3	10.8
조직 생활이 잘 안 맞아서	9.2	16.2	경직된 조직문화로 인해 직장 생활이 힘들 어서	15.5	15.7
분야 특성상 프리랜서로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18.5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성차별 등 부 당대우 때문에	3.5	2.4
출산·육아·가사·가족돌봄 등을 병행하기 위 해서	1.2	0.7	타투이스트로 일하는 것이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어서	16.9	15.7
다른 일에서 버는 소득 부족하여 수입을 더 보충하기 위해(투잡)	1.2	0.7	타투이스트로 일하는 것이 경력이 더 잘 개 발되기 때문에	17.6	15.7
상대적으로 고소득 올릴 수 있어서	9.2	9.6	다니던 회사 업무가 구조조정 되어서	4.2	4.8
학업, 학원수강, 직업훈련, 취업준비 등을 병행하기 위해서	0.8	1.5	흥미적성, 관심 등	28.2	33.7
건강상의 문제로 정기적으로 출퇴근할 수 없어서	1.2	0.7	전체	100.0	100.0
업무 경험과 이력을 쌓기 위해	6.0	7.4			
흥미적성, 관심 등	25.7	32.4			

## 2. 타투이스트 일 선택과 방식

- 첫째, 타투이스트 일감 수주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진행되고 있고, 개인 인스타그램 등 SNS(34%)와 온라인 커뮤니티(20.4%), 개인 네트워크(기존 고객 16%, 지인 추천 14.8%)가 다수였음. 한편 최근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맞물려 타투분야에서도 플랫폼(타투 웨어 등)을 통한 일감이 거래되고 있는 것도 동일한 현상임. 설문조사에서는 34.1%가 타투 플랫폼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표 2〉 타투이스트 일감과 선택 기준(단위: %)

일감 찾는 경로	1,2순위 합계	1순위	일감 선택 기준	1,2순위 합계	1순위
잡 포털 사이트	3.6	5.1	작업 기간	1.9	1.5
온라인 커뮤니티	20.4	20.6	보수	24.9	14.7
어플리케이션(인스타그램 등)	34.0	50.0	거래처(고객)	14.3	10.3
중개 플랫폼(타투 웨어 등)	3.6	1.5	작업/업무 내용	26.4	43.4
본인이 속한 단체(협회 등)의 소개	.8	0.7	경력 도움 정도	10.2	10.3
개인 업무 네트워크(기존 고객 소개)	16.0	5.1	작업 강도	3.4	1.5
지인 추천	14.8	10.3	작업 난이도	14.7	14.7
기타	6.8	6.6	기타	4.2	3.7
전체	100.0	100.0	전체	100.0	100.0

주 : 타투 업계에도 최근 플랫폼(타투 웨어 등)이 출현했고, 이를 통해 일감을 얻는 타투이스트 비율이 23.3%(45명)나 되었음. 고객/클라이언트와 작업 동의를 체결하고 일하는 비율은 64.4%(85명)이었음.

- 둘째, 타투이스트는 일감 선택의 중요 기준으로 ‘작업 내용’(26.4%), ‘보수’(24.9%)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작업 난이도’(14.7%)와 ‘고객’(14.3%)이었음. 프리랜서의 자유로운 직업적 특성처럼 일의 과정과 결과물이 개인적 성취와 연동되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음. 한편 타투이스트들은 경제적 이유만이 아니라 일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 Ⅲ. 타투이스트 노동실태와 특징

#### 1. 타투이스트 소득 및 경력

- 첫째, 타투이스트의 일자리 불안정성은 소득 단절이나 단가 문제와도 연동되어 있음. 2020년 타투이스트 연평균 소득은 3,000만원 수준(남성 2,680만원, 여성 3,178만원)이었고, 3년 미만의 경력이 짧은 타투이스트는 1,685만원 수준이었음. 타투이스트 중 투잡(36.3%) 비중이 적지 않았고, 주된 이유는 ‘불규칙한 소득’(42.9%)이나 ‘부차적인 소득 보충’(38.8%) 때문이었음. 실제로 타투이스트들은 연간 월 소득이 없는 기간이 평균 2.8개월(3년 미만 타투이스트 3.2개월)이나 되었음.<sup>3)</sup>

〈표 3〉 타투이스트 소득, 경력(단위: 년, 만원, 년, 개월)

		총 활동 경력	연간 총 소득	연간 부업 소득	작업 재료지출 비용	월 소득이 없는 기간
전체		2.92	3,002.2	434.8	57.2	2.8
타투 시작 시기	2003년-2015년	6.86	4,107.3	120.7	138.3	2.9
	2016년-2018년	3.09	3,499.2	380.4	42.2	2.6
	2019년-2021년	1.00	1,685.6	652.5	40.7	3.2
연령	19-24세	1.26	2,021.9	432.7	34.6	2.4
	25-29세	2.69	3,379.8	395.8	51.9	2.7
	30-34세	3.32	2,422.1	410.8	53.4	3.0
	35세 이상	5.60	4,010.0	687.1	124.0	3.8
성별	여성	2.60	3,178.5	410.3	44.5	2.6
	남성	3.56	2,680.4	482.2	82.1	3.3
전업 부업	투잡	2.51	1,717.1	1027.6	37.6	3.5
	전업	3.19	3,750.6	92.3	68.8	2.4

3) 조사대상 타투이스트 10.3%만이 코로나19 긴급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16.2%는 신청은 했으나 미해당자(소득 기준 등)로, 53%는 본인이 해당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신청은 못한 경우로 확인됨(정보를 알지 못해 신청 못한 사람 20.5%).

〈표 4〉 타투이스트 일과 노동시간(단위: 일, 시간)

		타투 작업 시간				부업 시간	
		1주일 작업 요일	야간 작업 요일	1일 작업 시간	1건당 작업 준비 시간	1주일 노동일	1일 노동시간
전체		3.44	.88	4.86	2.10	3.16	5.55
타투 시작 시기	2003년-2015년	4.00	1.61	5.89	2.94	2.60	6.60
	2016년-2018년	3.58	.90	4.97	2.04	3.29	5.14
	2019년-2021년	3.01	.53	4.28	1.83	3.17	5.70
연령	19-24세	3.57	.43	4.29	1.36	2.40	6.80
	25-29세	3.72	.84	5.23	2.03	3.18	5.23
	30-34세	3.10	1.52	4.84	2.58	3.62	4.38
	35세 이상	2.73	.23	4.23	2.23	3.50	8.00
성별	여성	3.49	.56	4.55	1.83	2.91	5.20
	남성	3.35	1.51	5.49	2.63	3.79	6.43
전업 부업	투잡	2.80	.50	4.14	2.02	3.16	5.55
	전업	3.78	1.07	5.23	2.14	-	-

○ 둘째, 타투이스트 평균 활동 경력은 2.9년(여성 2.6년, 남성 3.5년) 남짓이었는데, 1주일 평균 작업 일은 3.4일이었음. 타투이스트의 1일 작업시간은 1.8시간이었으나, 타투 1건 당 작업 준비 시간은 5.5시간이나 되었음. 타투 1건의 작업 준비 시간은 경력이 긴 편일수록 난이도가 있는 타투를 시술하기에 평균 2.9시간이었고, 경력이 짧을 경우에는 1.8시간이었음. 한편 소득 보충을 위해 부업을 하는 타투이스트들은 1주일 평균 3.1일(1일 5.5시간) 정도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음.

## 2. 타투이스트 일과 노동환경 만족도

○ 첫째, 타투이스트 일과 노동환경 만족도는 평균 60.6점(프리랜서 평균 55.6점)이며, 적성 및 흥미 일치 87점(프리랜서 64.6점), 자율성 및 권한 78점(프리랜서 67.6점), 개인발전 가능성 68.6점(프리랜서 56.3점), 일하는 환경(65.4점) 항목의 만족도가 높았고, 직업안정성 27.6점(프리랜서 38.6점), 보수 46.8점(프리랜서 45.1점)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음. 타투이스트 만족도는 여성과 20대 그리고 전업 타투이스트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5〉 타투이스트 일자리 및 노동환경 만족도(단위: 0점~100점)

	종합 만족도	보수	직업 안정성	작업 시간	일하는 환경	일-생활 균형	개인 발전 가능성	자율성 및 권한	노동 강도	적성 흥미 일치	업무 평가 시스템
프리랜서*	55.6	45.1	38.6	57.1	60.2	57.0	56.3	67.6	54.7	64.6	54.4
타투이스트 전체	60.6	46.8	27.6	58.1	65.4	57.5	68.6	78.0	54.5	87.0	63.0

		종합 만족도	보수	직업 안정성	작업 시간	일하는 환경	일·생활 균형	개인 발전 가능성	자율성 및 권한	노동 강도	적성 흥미 일치	업무 평가 시스템
타투 시작 년도	2003년-2015년	55.4	50.0	25.0	41.2	57.4	42.6	64.7	67.6	51.5	85.3	69.1
	2016년-2018년	61.8	50.8	27.5	60.6	66.5	58.5	68.6	78.4	57.6	87.3	62.3
	2019년-2020년	61.1	39.6	28.7	61.6	67.1	62.2	70.1	81.7	51.2	87.2	61.6
전업 투잡	투잡	56.6	33.8	27.5	56.3	60.6	51.9	63.8	75.6	49.4	88.1	58.8
	전업	62.8	53.6	27.6	59.1	67.9	60.4	71.1	79.2	57.1	86.4	65.3
성별	여성	61.0	49.0	28.2	60.1	64.9	56.8	67.2	79.9	53.9	88.3	61.7
	남성	59.9	42.5	26.3	54.4	66.3	58.8	71.3	74.4	55.6	84.4	65.6
연령	19-24세	64.8	47.5	37.5	65.0	76.3	60.0	75.0	81.3	56.3	86.3	62.5
	25-29세	62.6	50.9	30.1	59.7	64.8	59.7	70.4	79.6	56.0	89.4	65.7
	30-34세	55.2	38.3	20.0	52.5	58.3	50.0	62.5	74.2	54.2	85.8	55.8
	35세 이상	58.7	48.1	19.2	53.8	67.3	61.5	65.4	75.0	46.2	80.8	69.2

주 : '프리랜서' 조사결과는 김종진(2020), 「프리랜서 실태와 특징2」, 《KLSI 이슈페이퍼》, 제155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둘째, 타투이스트 절반(51.2%)은 개인 사무실 혹은 별도의 작업 공간에서 일 하고 있었고, 공유 작업공간(22%) 및 자택 작업(13.8%)이나 스튜디오 제공 작업장(9.8%)으로 확인됨. 때문에 타투이스트 혼자 독립적으로 일(55.6%)하기도 하지만, 동료들과 팀을 이루어 진행하면서 독립적인 일(37%)을 하고 있는 상황임.

〈표 6〉 타투이스트 사회보험 가입 및 방식 현황(단위: %)<sup>4)</sup>

사회보험 가입 현황							사회보험 가입자 형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 의향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직장가입	13.1	직장가입	12.4	가입	10.7	예	86.0	투잡 회사	62.5	66.7	78.6
지역가입	29.5	지역가입	45.5	미가입	89.3	아니오	14.0	기타	18.8	13.3	7.1
미가입	57.4	피부양자 등	19.0					본인 사업자	12.5	13.3	7.1
								소속 스튜디오	6.3	6.7	7.1

주 :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시 가입비용(보험료) 부담 관련하여 △ 클라이언트와 본인 절반 부담 17.4%, △본인 100% 부담 30.6%, △정부 지원 시 가입 43.8%, △가입 생각 없음 8.3% 등의 의견을 갖고 있었음.

○ 셋째, 타투이스트 사회안전망 문제는 프리랜서라는 종사상 지위만이 아니라 합법화 문제와도 연동되어 있음. 현재 사회보험 미가입 비율이 높았고, 건강보험(지역 45.5%, 피부양자 등 19%, 직장 12.4%)에 비해 국민연금(지역 29.5%, 직장 13.1%)은 절반 이상(57.4%)이 미가입 상태였고, 고용보험(89.3%)은 거의 없는 상황임. 한편 전국민 고용보험 정책이 시행될 경우 가입 의향은 86%로 매우 높았음.

4) 한편 조사대상 타투이스트의 약 18.2%는 지난 3년간 현재 일로 인해 정신질환 관련 병원치료를 받았으며, 52.1%는 신체적·육체적 질환 관련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 됨.

### 3. 타투이스트 부당한 노동현실

- 첫째, 타투이스트들은 일을 하면서 다양한 부당한 경험을 고객과 작업과정 전후에 경험하고 있었음. ‘계약거래의 불공정이나 부당대우’ 유형험은 △일방적 계약해지 45.5%, △부당한 지속적인 작업 수정 요구 43.9%, △작업 내용의 부당한 변경 32.5%, △계약기간의 일방적 연장 25.2%, △계약조건 이외의 작업 요구 24.4%, △계약된 보수 지연 지급 22.8%,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손배 지불 요구 12.2%, △계약된 보수의 일방적 삭감 10.6%, △추가 작업 보수 미지급 10.6%, △불공정 계약 조건 강요 9.8% 이었음.5)

〈표 7〉 타투이스트 부당대우 각 형태별 유형험 상황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불공정 계약조건 강요	예	9.8	12	계약된 보수 지연 지급	예	22.8	28
	아니오	43.9	54		아니오	51.2	63
	해당없음	46.3	57		해당없음	26.0	32
계약 조건 이외의 작업 요구	예	24.4	30	계약된 보수의 일방적 삭감	예	10.6	13
	아니오	43.1	53		아니오	61.8	76
	해당없음	32.5	40		해당없음	27.6	34
작업 내용의 부당한 변경	예	32.5	40	계약 불이행에 대한 과도한 위약금/손해배상 지불 요구	예	12.2	15
	아니오	45.5	56		아니오	55.3	68
	해당없음	22.0	27		해당없음	32.5	40
부당한 지속적인 작업수정 요구	예	43.9	54	추가 작업 보수 미지급	예	10.6	13
	아니오	38.2	47		아니오	53.7	66
	해당없음	17.9	22		해당없음	35.8	44
계약기간 일방적 연장	예	25.2	31	일방적 계약해지	예	45.5	56
	아니오	43.1	53		아니오	29.3	36
	해당없음	31.7	39		해당없음	25.2	31

주 : 타투이스트들은 월 평균 1.1회 정도의 사전 연락 없는 예약 취소(노쇼)를 경험하고 있었고, 빈도는 1회(32.3%), 2회(19.2%), 3회(11.5%), 4회-5회(3%)였음. 현재 타투 고객과 시술 이전에 50%의 금액을 미리 받고 있는 상황이며, 3일 전에 고객에게 시안을 미리 공유하고 고객의 요청과 정에서 조율 조정되는 상황임.

〈표 8〉 타투이스트 폭언·폭언·성희롱·괴롭힘 각 형태별 유형험

	폭언		폭행		성희롱		괴롭힘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전체	12.2	15	-	-	15.4	19	12.2	15
여성	13.4	11	-	-	17.1	14	15.9	13
남성	9.8	4	-	-	12.1	5	4.9	2

- 5) 타투 현장에서는 “무작정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나 “작업한 뒤 몇 개월 등이 지난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돈을 요구하는 사례” 등으로부터 불이익을 감내하면서 일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비합법화로 인해 작업실 주소조차 노출하는 것이 어려워, 클라이언트(고객)와 시술 바로 전날 연락을 통해 이루어지는 등 불안정하게 일을 하는 사례 등이 있음.

〈표 9〉 타투이스트 이해대면 기구 필요성 의견

	1,2순위 합계		1순위		2순위	
	표본	비율	표본	비율	표본	비율
노동조합	104	50.5%	88	75.2%	16	18.0%
협회	66	32.0%	21	17.9%	45	50.6%
온라인 카페 등 커뮤니티	8	3.9%	-	-	8	9.0%
협동조합	22	10.7%	5	4.3%	17	19.1%
기타	6	2.9%	3	2.6%	3	3.4%
전체	206	100.0%	117	100.0%	89	100.0%

- 둘째, 타투이스트 업무 특성상 일정 시간 이상 대면 서비스를 할 수 밖에 없기에 작업과정에서의 다양한 고객과의 상호과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음. 설문조사 결과 ‘폭언·성희롱·괴롭힘 유경험’은 △폭언 12.2%(여성 9.8%, 남성 13.4%), △성희롱 15.4%(여성 17.1%, 남성 12.1%), △괴롭힘 12.2%(15.9%, 남성 4.9%) 순임. 설문조사 결과 남성에 비해 여성의 업무상 폭언이나 성희롱, 괴롭힘 유경험이 더 많았음. 한편 타투이스트들은 이해대면 기구 필요성은 노동조합(50.5%), 협회(32%), 협동조합(10.7%) 등의 순으로 확인되고 있음.

#### IV. 맺음말

- 미국에서는 타투 스튜디오가 21,000개, 프랑스는 4,000개, 영국은 3,000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호주에도 관련 법률이 지방정부에 제정되어 시술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문심명, 2021; 김대중 외, 2019). 한국처럼 타투를 의료법에 묶어 둔 채 비합법으로 하는 국가도 드문 상황임. 이와 같은 문제는 타투 합법화 논의와 연동되고 법률 다툼이 발생한바 있음. 실제로 타투유니온 김도운 지회장이 2019년 12월 연예인에게 시술을 한 사실이 알려져 재판에 넘겨지자, 김 지회장에게 시술을 받은 연예인과 동료 타투이스트, 시민 등 1만 명이 탄원서를 낸바 있기도 함.<sup>6)</sup>
- 타투는 블랙워크, 라인워크, 트라이벌, 이레즈미, 올드스쿨, 뉴스쿨, 레터링, 두들(낙서), 수채화 등 다양한 종류의 형태가 있음. 타투 작업 방식은 크게 머신을 이용하는 ‘머신타투’와 직접 바늘로 점을 찍어 새기는 ‘핸드 포크’로 나뉨. 타투는 신체피어싱(body piercing)으로도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국내외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취

6)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2021년 6월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타투업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타투이스트 노조인 타투유니온과 함께 문신을 한 등을 드러내는 퍼포먼스를 한바 있음. 2021년 12월 국회에서 타투 합법화를 촉구하는 전시전 등을 개최한 바 있음. 타투유니온 김도운 지회장은 브래드 피트, 스티브 연 등 할리우드 유명 배우들도 찾는 세계적인 타투이스트임. 2007년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문신시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현행 보건범죄 단속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의료법 27조)는 결정을 한바 있음.

향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이용할 정도로 대중화되고 있음. 오히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타투 합법화를 통해 시술 전반의 안전보건 문제와 함께 노동시장의 제도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7)

- 한편 타투이스트들은 제도적·정책적 영역별 개선과제(16개) 의견으로 △근로자성 인정 92.9점(프리랜서 77.3점), △법률지원 시스템 마련 92.5점(프리랜서 81.1점), △표준계약가이드 마련 90.4점(프리랜서 78.1점), △경력인정 시스템 마련 89.5점(프리랜서 80.8점), △세무상담지원 88.2점(프리랜서 77.5점), △사회보험 지원 87점(프리랜서 76.8점), △국제교류지원 85.3점, △건강심리지원 82.3점(프리랜서 69.4점), △인식개선 캠페인 81.4점(프리랜서 70.7점), △시장 모니터링 80.1점(프리랜서 74.2점) 등의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음.

〈표 10〉 타투이스트 제도 및 정책 개선 필요도 의견(단위: 0점~100점)

	계약방식 개선 지원				타투 업무 지원					타투 지원		인식개선		교육훈련		
	표준 계약 가이드 라인	법률 지원 시스템	시장 모니터링	공공 기관 중개 업체 운영	계약 업무 수행 지원	4대 사회 보험 지원	작업장 오피스 지원	건강 심리 상담 지원	세무 상담 지원	사회적 협의 기구 구성	단체 지원	인식 개선 캠페인	근로자성 인정	경력 인정 시스템 마련	공공 교육 훈련 주관	국제 교류 행사 지원
타투이스트 설문조사 (2021.1)	90.4	92.5	80.1	42.9	73.5	87.0	71.2	82.3	88.2	77.4	79.5	81.4	92.9	89.5	64.5	85.3
프리랜서 설문조사 (2020.10)	78.1	81.1	74.2	62.3	71.2	76.8	68.0	69.4	77.5	70.1	69.9	70.7	77.3	80.8	67.6	-

주 : 프리랜서 설문조사 결과는 김중진(2020), 「프리랜서 실태와 특징2」, 《KLSI 이슈페이퍼》, 제155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이 글에서 검토한 ‘타투이스트’의 노동시장 및 노동현실을 보면 소득 불안정성도 높고, 초기 진입과정의 교육과정 등도 미흡한 상황임. 타투 노동시장의 표준화가 안 된 것은 비합법화에서 기인한 문제와 연동된 측면이 있음. 계약 및 작업 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가 대표적임. 타투이스트는 다른 프리랜서에 비해서도 어떤 제도적 구제나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차이가 있음. 타투이스트들은 “직업으로 인정받고 노동자처럼 보호받고 싶다”, “합법적인 세금을 국가에 내고 일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고 있음. 다른 직업처럼 “건물 앞에 간판을 걸고 일하고 싶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시점이 아닌가 생각됨.

- 따라서 이제는 표준적 노동 기준이 부재한 타투 노동시장에서 ‘전문적인 직종별 노동시장’ 형성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 제도화 논의는 타투 직업 표준적 운영(자격, 표준 계

7)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안전신체예술법」(Safe Body Art Act)나 미국 뉴욕주의 공중보건법 제4A절「public Health Law Article 4A」,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의 문신사법「Tattoo Parlours Act 2012」등과 같이 신체예술 혹은 신체 피어싱을 제도화하고 규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자세한 내용은 국회입법조사처의 「문신 등 신체 예술 관련 미국의 법제도화 현황과 시사점」(문심명, 20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문신시술 실태 조사 및 안전 관리 방안 마련」(김대중 외, 2019)을 참조할 것.

약, 재료 수급 관리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직업능력향상, 숙련형성, 교류와 세미나, 단가 등), 사회안전망(사회보험, 육아출산 등), 공용 작업장 및 분쟁갈등조정 등 법률 지원을 넘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부표] 2021년 타투이스트 설문조사 조사대상 표본(N=193)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별	여성	130	67.4	경제 활동	맞벌이	46	23.8
	남성	63	32.6		혼자 벌이	147	76.2
혼인	미혼·비혼	164	85.0	* 본인 생계 책임(59.6%, 115명)			
	기혼 등	29	15.1	타투 경력	2003년-2015년	22	16.8
연령	19~24세	32	16.8		2016년-2018년	65	50.8
	25~29세	97	50.8		2019-2020년	49	22.0
	30~34세	42	22.0	지역	서울	106	54.9
	35세 이상	20	10.5		경기	48	24.9
교육 학력	고등학교 이하	49	25.4		그외	39	20.2
	2·3년제 대학	35	18.1	노조 가입	조합원	133	68.9
	4년제 대학	98	50.8		비조합원	60	31.1
	대학원	11	5.7	평균 연령 28.7세(최소 20, 최대 46), 평균 시작 년도 2017년(활동기간 2.9년)			

[별첨자료1] 타투이스트 제도와 정책적 개선과제 의견(단위: 0점~100점)

		4대 사회 보험 지원	표준 계약 가이드 라인	법률 지원 시스템	경력 인정 시스템 마련	시장 모니 터링	공공 교육 훈련 주관	공공 기관 중개 업체 운영	사회적 협업의 기구 구성	인식 개선 캠페인	작업장 오피스 지원	건강 심리 상담 지원	세무 상담 지원	계약 업무 수행 지원	단체 지원	근로자 성 인정	국제 교류 행사 지원
전체		87.0	90.4	92.5	89.5	80.1	64.5	42.9	77.4	81.4	71.2	82.3	88.2	73.5	79.5	92.9	85.3
타투 시작 년도	2003년 -2015년	82.4	88.2	85.3	91.2	79.4	64.7	45.6	77.9	76.5	60.3	77.9	82.4	67.6	77.9	91.2	80.9
	2016년 -2018년	88.1	89.4	93.6	90.3	78.8	65.3	44.1	78.4	83.5	71.2	84.7	89.4	72.9	78.8	92.8	88.1
	2019년 -2020년	87.2	92.7	93.9	87.8	82.3	63.4	40.2	75.6	80.5	75.6	80.5	89.0	76.8	81.1	93.9	82.9
부업 여부	예	84.4	91.3	93.8	90.6	83.8	65.0	39.4	73.8	82.5	74.4	83.8	89.4	75.6	81.3	93.8	84.4
	아니오	88.3	89.9	91.9	89.0	78.2	64.3	44.8	79.2	80.8	69.5	81.5	87.7	72.4	78.6	92.5	85.7
성별	여성	89.3	92.5	94.8	91.2	83.4	68.5	42.9	78.6	84.1	74.4	84.1	89.6	75.0	81.5	94.5	84.4
	남성	82.5	86.3	88.1	86.3	73.8	56.9	43.1	75.0	76.3	65.0	78.8	85.6	70.6	75.6	90.0	86.9
연령	19-24세	90.0	91.3	91.3	90.0	85.0	72.5	50.0	85.0	88.8	83.8	83.8	88.8	82.5	85.0	92.5	83.8
	25-29세	88.0	91.2	94.9	92.1	82.4	60.2	39.8	76.4	80.6	66.2	82.4	88.4	72.7	78.7	95.4	87.0
	30-34세	81.7	86.7	89.2	85.8	72.5	65.0	40.8	71.7	80.0	73.3	80.8	89.2	68.3	75.8	89.2	83.3
	35세 이상	90.4	94.2	92.3	86.5	80.8	69.2	50.0	82.7	76.9	67.3	82.7	84.6	75.0	82.7	92.3	84.6

[별첨자료2] 영국 타투 및 피어싱 노동조합의 코로나19 관련 정부 답변서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Gavin Sibthorpe  
Political Officer  
GMB

Email: [Gavin.Sibthorpe@gmb.org.uk](mailto:Gavin.Sibthorpe@gmb.org.uk)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1 Victoria Street  
London  
SW1H 0ET

T +44 (0) 20 7215 5000  
E [enquiries@beis.gov.uk](mailto:enquiries@beis.gov.uk)  
W [www.gov.uk](http://www.gov.uk)

Our ref: N10#2020/19618

22 June 2020

Dear Gavin,

Thank you for your email of 10 June in which you enclose a letter from Mr Rick Stevens, President of the Tattooing & Piercing Industry Union, regarding the Close Contact Services Taskforce.

Currently there are no plans for any further engagement on this subject, but I am grateful for his views and have asked my officials to ensure that these are fed into the final guidance and any future updates.

On the black market issue, I would suggest that where there is intelligence that this is reported to the local trading standards office (which can be found here: [www.gov.uk/find-local-trading-standards-office](http://www.gov.uk/find-local-trading-standards-office)), or the local authority.

I welcome the opportunity to continuing to work with your union.

**PAUL SCULLY MP**  
Minister for Small Business, Consumers & Labour Markets  
Minister for London